

메시지 2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두 기도

성경: 엡 1:17-23, 3:14-21

- I.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계시를 위한 기도)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엡 1:17-23.
- A.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영원의 이상, 곧 영원에 속한 생활을 하고 영원에 속한 일을 할 정도로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는 이상을 보고 알고 가져야 한다—갈 1:15-16, 2:20, 4:19, 고전 2:9-10, 6:17, 15:10, 16:10.
- B.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다—골 1:27.
1. 우리의 영광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나타남과 완결이 되시도록 우리가 가장 충만한 정도로 깨닫고 체험하고 얻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시다—빌 3:14, 롬 5:2.
 2.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아질 것이다—롬 8:29-30, 요일 3:2.
 3.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최종 완결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변형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일 것이다—엡 4:4, 빌 3:21, 롬 8:19, 23-25.
- C.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증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만드시는 것을 말한다—엡 1:11, 13하-14, 18.
1.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 그러한 풍성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구성하는 빛, 생명, 능력, 사랑, 의, 거룩함과 같은 여러 단계로 표현되는 다양한 항목이 있다.
 2.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위에 있는 도장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시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우리 몸이 영광 안에서 변형될 때까지, 성령의 도장 찍음과 보증은 계속해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에게 침투시켜 우리를 변화시킨다—엡 1:11, 13하-14, 4:30, 롬 8:23, 빌 3:21.
- D.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곧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천하는(초월하는) 능력과 정복하는(굴복시키는) 능력과 한 머리 아래 통일하는(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고 ‘믿는 우리들을 향하며’ ‘교회에게’ 주어졌다—엡 3:20, 1:19-23.
1.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이렇게 지극히 큰 사중 능력의 저장소이다.
 2.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될 때 그분을 머리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될 때 우리를 몸이 되게 한다.
 3. 이 능력의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엡 3:16, 20, 빌 3:21하, 4:13, 골 1:29.
 4. 이 능력의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나오려는 강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계 3:1, 고후 3:6, 5:4.
- II.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체험을 위한 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일을 위해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기를 기도한다—엡 3:14-21.

- A.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기도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차원, 곧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이 있게 된다.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신진대사적인 과정을 구성한다.
- B.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영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기 위한 기관으로 계시된다.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의 영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한 인격, 곧 속사람이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의 사중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우리의 영에 이르러야 한다.
- C.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적 부분들(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의 총체이며, 우리 내적 존재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내적 부분 전체를 공급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 D.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너비를 체험하고, 그 후에 길이를 체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전진할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의 높이와 깊이도 체험한다.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반드시 입방체처럼 삼차원적이어야 하며, 하나의 선처럼 일차원적이어서는 안 된다.
 2.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서 우리는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며,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지성소와 같이 견고한 '입방체'가 되어야 한다—출 26:2-8, 왕상 6:20, 계 21:16.
 3.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몸에 의해 균형이 이뤄져)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비교 고전 12:24.
- E. 결국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엡 3:19.
1.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알 수 있다.
 2.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분배되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온 존재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에 나눠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신다.
- F.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이루실 수 있다—엡 3:20.
- G.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강건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짜이고, 그런 다음 이 영광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엡 3:16, 21.